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마음자리의 이름을 '부처'라 한다

업의 당처가 빈출 알아야한다 ③

안 찾으면 그만이라. 내가 마음을 쓰기 때문에. 물건을 사려면 물건을 사. 공부를 하려면 공부해. 이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사십구 년 동안 설법하신 거라.

왜 그러나. 너무나 지나치게 내 마음하고는 친해. 바로 그 자리라. 허공이 그렇게 내가 친해. 친하기 때문에 허공에 관심이 없어. 내 마음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마음이다. 바른 마음이라. 바른 마음은 어디 있으며 잘못된 마음은 어디 있겠나. 그러나 경계에 닿질려서 분별을 일으키는 것을 싫어하다 이래 하는데, 그렇게 말마디를 만들어 놓으니 아 싶던 마음만 있고 참마음은 어디 따로 있을 거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 자리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

마음자리는 이름을 지어서 부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거든요. 눈이 있는 그 소식을 본 문제로 들어가서 찾기 시작하는데, 있거든요. 있는데 너무나 내 부처는 너무나 친해. 너무나 가까이. 서로 체면 차릴 것도 없고, 그러니 무시해. 허공을 우리가 무시하듯이 무시해. 그러하기 때문에 무엇이 있겠다 싶어서 인연관계로서 좋은 인연 관계면 좋은 몸을 받게 되고 나쁜 인연 관계면 나쁜 몸을 받게 되는데, 차별현상에 일어나는 거기에 딱 닿질려서 무엇이 따로 있지 하고 무엇을 구한다 말이에요.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구할 거요?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해 봅시다.

그러하기 때문에 허공은 하나나 지도리가 하나고 지도리가 하나니 목숨이 하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땅의 임자라 말이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당장의 마음. 요것이 하늘땅의 임자거든. 왜 임자라 하느냐. 거기에는 슬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멍청한 사람들은 엉뚱한 짓을 해. 바로 여러분이 당장의 마음 그 자리라. 그 자리가 바로 하늘땅의 임자인데 말이 지 떠 데 텨이 있는가 싶어서 다른 데 찾아서 헤매인다 말이지. 천년만년 헤매고 찾아봤든... 왜 그러느냐. 허공 속에서 백주(靑丘) 자기 생각을 잘못 가져서 버리겠다 견어잡겠다 이러한 풀이나 꼭 한가지 거든. 물속에 있으면서 물 한잔을 건네 가지게요.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갖다

버릴려고 하는 거나 꼭 마찬가지로 말이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라. 어리석은가.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요 문제에 있어서 마음의 있는 곳, 이것부터 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내가 이 말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할 때 여러분 머리 또 아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문젠지 리가 안 돼. 마음이 어디 있다는 것이 문젯거리고 안 돼. 마음이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과 몸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도 내가 많이 했거든요. 하나씩 어디에 있다. 여러분들 아는 분 몇 있는데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은 마음이 어디

“

분별은 진심이 아니다
마음은 있지도 없지도 않고
참도 거짓도 없는 것이다
진심을 찾고자 한다면
내 마음과 타협해야 한다

”

에 있다. 이거 어디에 있다고 말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어디 있다고 어떻게 말할까. 솔직한 말로 말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뱃속에 있다 머릿속에 있다 뭐 어디에 있다. 이거 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말이지. 이거 참 불가사의한 겁니다. 이런 몸뚱이를 나뉘어서 이래서 사람인 양해서 사업도 하고 인생놀이도 하나씩 이거 참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탁 들어앉아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다 싶어서 말이지 여기서 설혹 우리가 그거 하고는 있지만 말이지, 거 참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자리란 거는 말이 사실 이 몸에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나 이 몸을 여린 것도 아니요, 이 몸 밖에 없는 것도 아니요, 그러나 이 몸 밖에 있다 해서 찾아도 없어. 왜 그러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놈을 어떻게 찾으란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나 저러나 있긴 있거든.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요 자릴 알겠습니까. 있긴 있어. 이상하단 말이지. 물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마음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다 하면 말이지 어디 있는 곳을 찾아내질 못해. 또 없다 하면 말이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고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을 하니 이놈이 마음자리거든. 그러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말이지 내의 마음을 찾아낼까, 누구하고 타협을 하면 될까요. 할 수 없어. 어떻게 하면 내의 진심, 진심이라 해야 좀 실감이 나거든요. 마음에 진이니 거짓이니가 어디 있어요. 사실. 참도 거짓도 없는 겁니다. 참마음 거짓마음 이렇게 해야 실감이 나거든요. 이 자리는 내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고, 어떻게 하면 내의 진심을, 참마음을 찾아낼까.

누구하고 타협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기 보살님 말씀해 보세요. 누구하고 타협을 해야 되겠어요? 타협할 자리가 하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에 있을 거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음하고 타협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면 내 진심을 찾아내고 하는 고놈하고 타협을 해야 되요. 그렇지요. 마음은 하나거든요. 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심을 찾아내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공부할고 그 말 아니에요? 진심을 찾아내고. 타협할 데가 아무데도 없어. 어떻게 하면 내 진심을 찾아내고 고거하고 의논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하나지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자리가, 사실로 이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인연이 멀어졌어. 공연히 멀어졌다 해서 지 생각에 그렇지. 말긴 뭘 멀어. 인연이 멀어졌다 하는 것도 그 자린데, 또 그 다음에 가서는 제일 첫째 경계에 닿질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진심으로 알기 때문에 그만 저절로 떨어진 거와 같이 생각할 따름이여. 사실로 경계에 닿질려서 일어난 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심의 한 가닥 여김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경계에 닿질려서 분별 사랑 분별한다 해서 그것이 진심 아닌 거 아니거든요. 꼭 그와 마찬가지로.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나무아미타불’ 하며 업장 소멸

14-3 십념(十念)

이래서 우리는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것이다. 또 다음 얘기는 원효대사께서 하신 말씀으로 유심안락도(遊心安樂道)라고 하는 극락세계, 아미타불을 설명하는 데서와 원왕생(願往生)을 해설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다.

여러 억만년 동안 캄캄한 동굴 속에 있다. 그런데 어찌 나무아미타불로서 업장을 소멸 할 수 있느냐.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억만년이 지나고 몇 억겁이 흐르고 캄캄한 동굴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불 한번 번쩍 켜다면 단박에 이 굴 안은 광명으로 환해질 것이다. 한 찰나에 환해진다.

우리가 별별 짓을 저지르고 모든 업장을 지었다손 치더라도 일념(一念) 나무아미타불할 때, 그 업장이 모두 말끔히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단박에 반박을 한다. 여러 수십년 동안 많은 일을 저질렀는데 아미타불 한번 부른다고 그것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우습지 않느냐 그런 것이다. 우리가 사회에서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특히 불교는 인과(因果)를 들먹여, 원인에는 결과가 따르게 마련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만 법적으로 죄에 대한 해당 형량(刑量)을 무기, 10년 5년 또는 벌금형 따위로 매기는 것처럼 도덕을 어긴 죄악도 역시 제가끔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르거니와 전연 아무 가책도 안 받고 그대로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니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야말로 인과의 법칙을 무시한 얘기가 아니냐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사회의 인과법칙은 정량적(定量的)인 것이다. 원인의 지은 양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정량인과적(定量因果)인 것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본다면 번번히 부정량인과적(不定量因果)인 것이 있다. 원인의 양과 결과의 양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때로는 반비례하는 일조차 있다. 많이 노력한다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반드시 그렇지 않다. 나무를 깎아 대패질을 하며는 나무의 무늬가 드러나고 매끌매끌해진다.

그래서 대패질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

고 무작정 자꾸 밀어댄다면 어떻게 될까. 나중엔 다 답아버리고 대패밥 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노력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노력한 대로 되진다고 보는 것을 정량인과라 하고, 노력하는 것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같지 못할 때, 이것을 부정량인과라고 한다. 정량이 아닌 인과가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묘관찰지(妙觀察智)라고 한다. 정량인과는 성소작지(成所作智)라고 한다. 지혜와 노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도 안 되는 예술의 지경. 천안(天眼)이 관여하는 바를 묘관찰지라고 한다.

이들 둘, 성소작지나 묘관찰지는 우리

“

죄악은 저울대에 달듯이
인과의 잣대로 평가 어렵다
수승한 인연 따라 업장 사라지고
극락의 안락한 세계로 간다.

”

가 현실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화선지에 묵화를 치는데 의제(毅齋)선생 같은 이가 운필하는 것을 보면 붓을 이리 돌리고 저리 굽고나면 대와 국화와 바위가 절로 되어진다.

한번 붓을 놀릴 때마다 이런 것이 척척 나와 어우러진다. 그렇다고 자꾸 먹을 칠하고 그어대기만 하면 더 훌륭한 그림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또 먹을 털 칠하고 그리다 말아 버려도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술의 지경이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소리를 내는데 템포를 급히 하거나 천천히 하거나 음정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또는 소프라노라든지 테너라든지, 거기에 따라 운동적인 선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리를 높여야만 되는 데도 있고 낮추어야 하는 데도 있다. 이런 것은 정량적인 것이 아니고 높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낮추어서 될 일도 아니다. 이런 지경을 부정량인과라

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과 저지른 일을 저울대에 달면, 중량이 무거운 것은 저울추가 썩 올라가고 가벼울 때는 처진다고 하는, 그런 정량적인 저울대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러한 저울대로 모든 인과의 형상을 함부로 달든지 비평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서 얻을 수 있는, 부처님의 자재(自在)로운 신通力(神通力)과 같은 부정량적인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를 승연(勝緣)이라고 한다. 수승한 인연에 따라서 업장이 없어지고, 극락의 안락한 세계로 가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다. 위의 얘기는 원효대사가 말씀함 바이다.

무량수경(無量壽經)에는 또 이런 말이 있다. “만일 사람들이 누구나 다 정당한 원을 세워 서방(西方)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고 생각하면 제가 꿈 닭은 바 선근(善根)에 따라 그 원을 성취한다”고, 원을 성취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에 가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며 또 생활이란 일만덕이 구비한 아미타불을 항상 친히 보옵는다는 그것을 말한다.

그러하여 마침내 “어느 때까지라도 퇴굴(退屈)하지 않고 그리고 부처님을 보옵고, 참된 진리를 깨쳐 항상 닦고 수승(修習)하고 필경에는 정정(正定)에 든다” 정정은 바로 삼매경(三昧境)이다. 그러니까 보은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서 우리가 아미타불의 품안에 포섭되어 있는 그런 생활이다.

정정에 든다는 데는 세 가지 설이 있다. 정정에 드는 것은 견도(見道) 이상이라야 된다. 견도란 ‘올게 봤다’, 자기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그런 자리다. 이것은 수도(修道) 견도 등으로부터 구경도(究竟道)까지 오도(五道)라는 것 가운데 둘째 지경이다. 이 자리는 퇴타(退轉)함이 없는 불퇴전(不退轉)의, 아비발지의 지경이며, 또한 심심이 심심에서 심주(十住)에 까지 올라온 단계에 있어야 한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장 원화 채정택)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고(告) 합니다

- 우봉스님의 중창주 인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불법승 삼보에 귀의 하옵니다.

저희들은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소재 수덕사 말사인 다보사(多寶寺, 2007년 사찰 명을 동사(桐寺)로 변경했으나 편의상 이하 다보사로 표기함)의 불자들로 2002년 구성된 법당이전불사추진위 소임자 들입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수덕사 주지스님께서 우봉(佑峯)스님을 다보사 창건주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다보사 중창주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혹감을 금할 길 없어서 그 연유를 규명해야 한다는 결의의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덕승총림 방장 원담스님과 총무원장 범장스님이 열반하시기 이전 우봉스님이 같은 사안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고, 결국에는 우봉스님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공식판결에 의해 우봉스님이 다보사를 하차한 일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당시의 정암(崇무국장)스님, 효성(재무국장)스님 등이 증인이기도 합니다.

다보사 이전불사가 완료된 2003년 당시에도 주지대행인 우봉스님이 다보사를 수덕사 말사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스님이 다보사를 창건 했다면서 사실사상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이에 신도들과의 내홍을 치른 뒤 다시 공찰로 돌려났습니다. 또한 2003년 초 이전불사 당시 2억원을 대출 받았으나 우봉스님이 떠난 다음 신도들이 심혈을 기울여 정체를 마련해 이 대출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 같은 엄연한 사실을 도의시하고 우봉스님에 대해 취한 조치는 중대한 실책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우봉스님의 중창주 지정취소를 총무원장 스님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보사의

창건주는 현 법주사 주지인 현조스님입니다. 저희들은 1998년 현조스님을 모시고 서울 영등포 포교당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마하연에서 신행활동을 하던 중 수행공간이 협소해 서울 강동구 성내동 다보사(현 동사)를 창건했습니다.

그 후 현조스님이 2001년 7월경 다보사를 휴연히 떠난 후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왔고, 그러던 중 현조스님께서 수덕사 스님을 모시라는 부촉에 따라 신도들이 수덕사를 방문했고, 2002년 3월경에 수덕사 서울 포교원으로 등록된 후 스님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수덕사는 우봉스님을 다보사에 보냈습니다.

이에 신도들은 다보사가 협소하고, 임대료 내 준 건물 주인이 비위달라는 요구마저 있어 사찰이전을 위한 불사추진위를 구성했습니다. 이 당시 사찰이전불사추진위는 우봉스님과 어떤 스님에게도, 사찰에서도 보시를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불자들 스스로 원력을 세우고 기도를 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의 동사(구 다보사)를 매입했고, 수덕사에 공찰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봉스님은 이러한 불자들의 열망과는 달리 자신이 창건주로 등록하려다 안 되니깐 또 다시 중창주로 등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스님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 스님이 떠나실 때 전별금 2천만원까지 챙겨 가신 분이 무슨 미련이 남아서 10년 전의 잘못된 일을 또 다시 되풀이 하고자 하는지 우리 불자들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시 한번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간청 드립니다. 다보사(현 동사)의 우봉스님 중창주 지위를 취소해 주실 것과 향후 공개적 절차 없이 중창주로 변경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기 2558(2014)년 10월 13일

다보사(동사) 불사추진위원회 소임자 일동